

이것이 적극행정,
달라진 대한민국입니다

2022 대전지방기상청 웹진
봄호 (Vol.27)

e - 날씨 (you)

충청도 구수한 사투리를 반영하여
'e(인터넷을 이용한) 당신을(you) 위한 날씨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2
대전지방기상청 웹진 봄호(Vol.27)
CONTENTS



기상청장 기고

- 05 / 당면한 기후위기, 행동해야 할 때
- 07 / 국민 소통이 우박 피해 줄인다



대전지방기상청 소식

- 09 / 3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18 / 4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28 / 5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32 / 2022년도 식물계절관측(봄꽃) 현황
- 33 / 관측기록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 Pixabay



서비스

35 /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는 기상청 전자민원

36 / 알기쉬운 민원 신청방법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 (구성동, 대전지방기상청)

전화 042-363-3599

발행일자 2022년 5월 31일

발행처 대전지방기상청

편집장 박영연 대전지방기상청장

편집/교열 이은영(기획운영과), 박창용(예보과), 이해정(관측과), 정영진(기후서비스과)

편집디자인 김진영(관측과)

웹진기자단 김정수(기후서비스과), 김정희(예보과), 김 호(예보과), 김효원(예보과), 남민우(관측과)

박보연(기후서비스과), 박선영(기후서비스과), 박진주(예보과), 박창용(예보과), 서유미(기후서비스과)

심준수(관측과), 안태건(관측과), 윤영란(예보과), 이정섭(관측과), 장민준(예보과), 최유미(관측과)

홍연주(기획운영과)



대전지방기상청에서 발행한 'e-날씨유,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이미지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il.or.kr

기상청장 기고문 #1 당면한 기후위기, 행동해야 할 때

바다쓰레기 중
80%는 육지로부터
유입

2015년 코스타리카 해안을 탐방하던 해양생물학자 연구팀은 멸종위기종인 ‘올리브바다 거북’을 발견했다. 바다거북의 코에는 벌레처럼 보이는 변형된 플라스틱 빨대가 꽂혀 있었다. 10cm가 넘는 빨대를 빼내며 고통스러워하는 거북의 모습은 세상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처럼 해양 동물을 괴롭히는 바다쓰레기 중 80%는 육지로부터 유입된다. 그중에서도 플라스틱은 썩지 않고 분해되지도 않아 해양쓰레기의 90%를 차지하며 지구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다.

작년 국민권익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74.8%가 주 2~3회 이상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대다수(97.8%)는 이러한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상아 대용품으로 개발된 플라스틱은 극강의 편리함 때문에 2020년 기준 연간 3억 6천만 톤이 전 세계에서 생산되고 있다. 99%가 화석연료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은 석유 및 가스 추출·정제, 분해, 소각 등 모든 생산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향후 10년 안에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산업혁명 이후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 등 인간 활동의 변화는 에너지 수요를 증가시켜 온실가스의 지속적 배출을 야기해왔으며, 이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극한기상 현상이 잦아지자 전 세계에 재난재해도 증가했다. 올해 1월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 ‘2022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 따르면, 124개국 정치·경제·사회 분야 1000명의 전문가들은 ‘극한기상 현상’을 향후 1~2년 내 가장 빠리다가올 중대한 위기 요소로 꼽았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실패’를 중장기적으로 가장 큰 위기 요소로 인식했고 응답자 중 68%가 현재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초기 단계라고 답변했다. 기후위기가 가져올 정치·경제학적 파급력과 대응 시급성에 전 세계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산화탄소는 100년 이상 대기에 남고, 길게는 1,000년 이상 잔류하기도 한다. 지금 당장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에 따른 피해는 다음 세대가 온전히 감당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에 일찍이 경감식을 가져 온 전 세계 과학자 만여 명이 지난 ‘바이오사이언스(BioScience, 2020)’ 논문 부록에 서명을 실으며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함을 촉구했다. 그들은 지난 40년간 중요한 기후변화 협상이 있었지만 직면한 기후위기 대응에는 사실상 실패했으며,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기후위기 국면에 이미 도달했음을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려면 당장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세계만방에 호소한 것이다.

최근의 지구 평균기온 상승 속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이러한 온난화가 지속되면 현재 기후를 지탱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설 것이다.

이미 그린란드와 서남극 빙상 손실 가속화 등 온난화로 인한 임계점 요소의 변화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2021년 발간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 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혁명 이후 현재 까지 지구평균기온은 이미 1.09°C 상승했으며, 1.5°C 상승도 곧 머지않았다.

우리나라는 작년 8월 3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고, 10월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확정했다.

제조업 비중이 30% 가량 되고, 매년 5% 이상 배출량이 증가하는 상황을 보면 매우 도전적인 목표다. 정부는 올해부터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포인트를 적립하는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제 등 다양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2022년 일회용품 사용량을 35% 줄인다는 목표로 일회용품 보증금제, 빙집·편의점 비닐 무상제공 금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탄소중립 실천에 세대 간 구분은 무의미하다

요즘 세대는 조강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g)’, 해변을 산책하면서 쓰레기를 쓸어 담는 ‘비치코밍(beachcombing)’을 주도한다. 또한, 친환경을 넘어 무엇을 하든 필수로 환경을 생각한다는 ‘필(必)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 기업을 골라내어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한다.

탄소중립 실천에 세대 간 구분은 무의미하다. 우리 모두가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지금 당장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행동해야 할 때다.



기상청장 기고문 #2

국민 소통이 우박 피해 줄인다

우박은 왜 봄에 잘 발생하는 것일까?

지금으로부터 887년 전,
1135년 고려시대 ‘묘청의 난’이 우박 때문에 발생했다면 믿을 수 있을까?
당시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힘을 키워 고려에 군신 관계를 요구했을 때, 금나라에게 강경하게 대해야 한다는 묘청의 제안을 받아들인 제17대 왕 인종은 서경(지금의 평양)으로 도읍을 옮길 준비를 했다.
하지만, 서경으로 행차할 때마다 날씨가 안 좋았고, 이윽고 1134년 4월 봄에는 낙동강과 한강 유역에 벼락과 우박까지 떨어지면서 당시 인종의 마음은 크게 흔들렸다.
결국, 인종이 서경으로 도읍을 옮기려는 것을 포기하자 묘청은 서경에서 난을 일으키게 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역사까지 바꿨던 우박...
올해도 어김없이 날이 따뜻해지면서 봄철의 단골손님 우박이 내릴 수 있음을 경계한다.

우박은 왜 봄에 잘 발생하는 것일까?

봄철에는 대기 상하층의 기온 차이가 심해진다.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은 공기는 차가운 공기 위로 가려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봄이 되면서 겨울 동안 차가워졌던 공기가 따뜻해지고, 이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가려는 성질이 강해지면서 구름이 발달한다. 구름 속의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섞이는 상황 속에서 얼음알갱이가 높이 올라갔다가 낮게 내려오기를 여러 번 반복한다.

그렇게 알갱이가 커지고, 결국 무거워져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우박이다. 관측 기록을 보면 지난 1년간 전국에서 총 23일의 우박 관측일이 있었고, 봄철 3~5월의 우박 관측 일수는 9일로 한 해 동안 관측된 일수의 40%를 차지해, 역시나 봄철에 우박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박은 다들 알다시피 우리에게 반가운 존재는 아니다.

딱딱한 성질 때문에 크기가 조금만 커도 농작물 피해는 물론이고, 심할 경우 해외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제작년 6월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는 우박을 동반한 폭풍이 휘몰아쳐 도시가 얼음에 묻히는 기상이변이 발생했다. 그해 7월 이탈리아 동부 해안에는 지름 10cm의 거대한 우박이 내려 1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현지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대기 흐름이 바뀌어 이러한 극단적인 기상이변 사례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해 평소 잘 내리지 않는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우박이 발생하기도 한다. 사실, 우박은 대기 중 일정한 조건이 맞을 때 어김없이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어서 봄철이 아닌 다른 계절에도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다만, 봄철이 우박이 발생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과거 인터넷 소통이 크게 활발하지 않던 시절에는 기상청의 관측소에서 우박이 관측되지 않으면, 그날은 우박이 없는 날로 간주되었다. 우박은 매우 국지적인 현상으로 기상청의 관측망을 피해서 발생했다면 아무도 모르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현재 우리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통해 소식을 전하고 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 외진 산속에서 지름 2~5mm의 작은 싸락우박이 내리더라도 발견한 이만 존재한다면 삼시간에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국민 개개인이 촘촘한 기상관측망이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덕분에 기상청 내부에서도 더 자주 우박 현상을 인지하고, 기상현상을 분석하는데에도 큰 도움을 받고 있다. 기상청은 기상청 공식 어플인 ‘날씨알리미’의 ‘날씨 제보’ 기능을 통해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 중이다.

기상청 공식 어플인 ‘날씨알리미’의 날씨 제보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 중이다

올봄에도 우박이 내릴 가능성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기상청은 우박 가능성을 분석하여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다. 우박의 가능성을 인지한 사람들은 농작물에 그물을 씌워주거나 차량을 가급적 실내에 주차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기상청은 전국 각지에 있는 ‘국민파수꾼들’의 관측 제보를 활용하고 기상감시를 철저히 해 우박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할 것이다.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3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2022. 3. 1. ~ 4. 30.

충남도청 관할 적설계 공동활용 지점 선정 및 국가기상관측망 연계

대전지방기상청은 충남 도내에 운영 중인 적설관측시설 97개소에 대하여 공동활용 검토를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55개소가 공동활용 지점으로 선정되었고, 그 중 관측환경이 우수한 36개소를 국가기상관측망에 연계하였다. 앞으로도 관측환경 개선 및 장비 교체를 통해 공동활용지점을 확대하고 관측망 연계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로써 적설관측 공백지역이 해소되고, 겨울철 위험기상에도 한층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2. 3. 5.~8., 4. 9.~10.

대전지방기상청 기상관측차량 대형 산불 현장지원 수행



대전지방기상청은 관측차량을 이용하여 강릉시 옥계사면(3.5.~8.)과 서산시(4.9.~10.)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현장에서 기상지원업무를 수행하였다. 관측차량을 통해 산불 현장의 바람, 습도 등을 관측하고, 관측한 자료를 차량 모니터와 메신저를 통해 재난대응팀에 공유하였다. 앞으로도 기상관측차량을 이용한 산불현장 관측 지원으로 국민안전 확보와 효과적인 재난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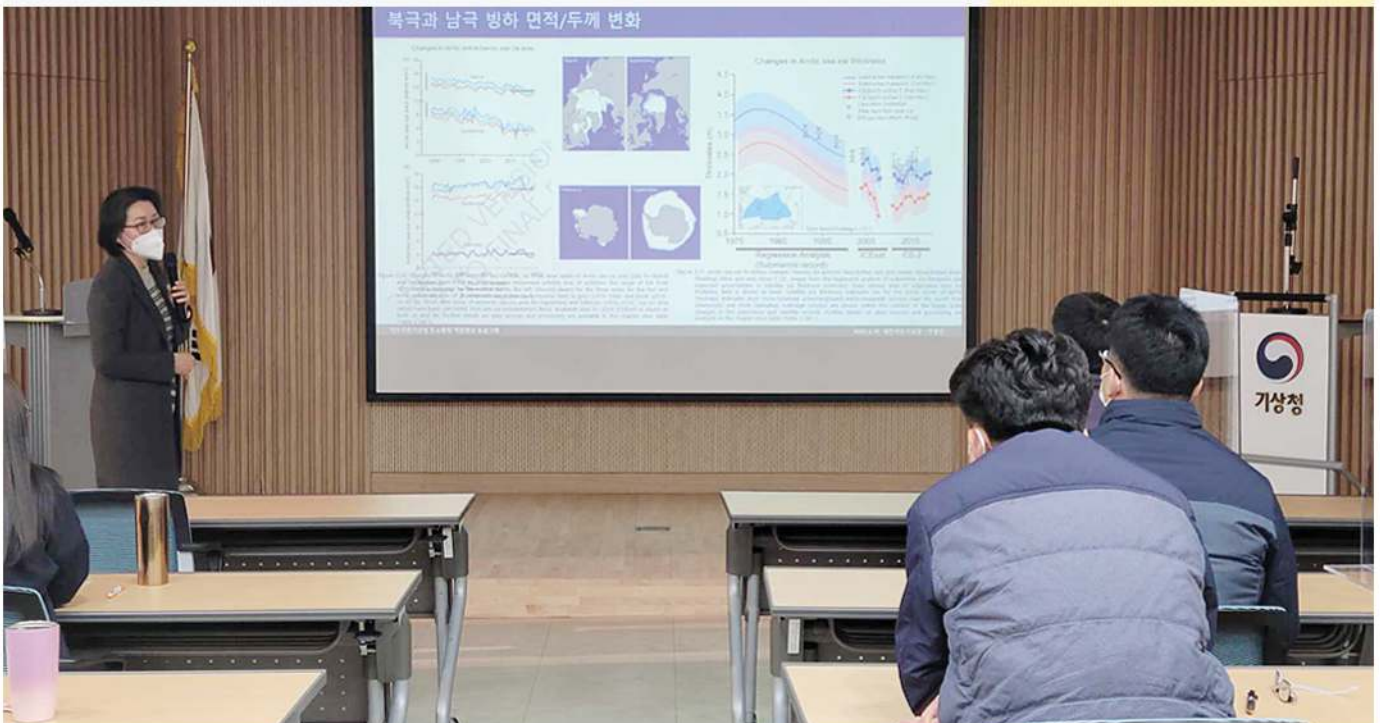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3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2022. 3. 10. ~ 4. 28.

3차 ~ 7차

탄소중립 내부 역량 강화 세미나

대전지방기상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라 선제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역량 강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기후변화의 이해에서부터 시나리오, 기상청의 역할, 지역실천 사례, 우리지역의 현황 등으로 알찬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7차시에 걸친 세미나로 직원들이 탄소중립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고 이와 연계를 통해 새로운 기상기후 서비스 발굴의 밑바탕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2022. 3. 23., 26.

세계기상의 날 기념행사 기상관측차량 시연



대전지방기상청은 기상청 대전 이전 후 처음으로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2022년 세계기상의 날 기념행사'를 지원하였다. 과학관 내 창의나래관 야외공간에 기상관측차량을 전시하고, 고층 관측을 시연하는 등 여러 부대행사를 진행하였다. 기상업무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 알리기 위해 개최한 이번 행사는 기상관측차량에 대한 인지도와 기상·기후에 대한 관심 향상에 기여하였다.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3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2022. 3. 23. ~ 25.

2022년 세계기상의 날 기념 기후변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기상청의 대전 이전을 홍보하고 기후변화·기후위기에 관한 관심도 증대를 위해 세계기상의 날 기념 기후변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대전지역 내 아동센터 2개 기관을 방문하여 이상기상현상 중 하나인 ‘토네이도’를 주제로 관심을 끌고 ‘오즈의 마법사’ 노래를 들으며 흥미를 유발하였다. 토네이도 만들기 교구는 실제 물을 넣어 작동시킴으로써 토네이도의 생성원리를 보다 생동감 있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2. 3. 31., 4. 20.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전시체험시설 제작설치 2차 준공 및 3차년도 착수보고회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전시체험시설 제작설치 사업의 2차분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3월 24일 실시하고, 올해 9월까지 진행되는 3차 최종 사업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4월 20일 개최하였다.

충남 내포신도시 지역의 지역 기상과학 및 기후변화 이해확산을 위해 기상과학관 개관('23.2분기)을 추진 중이다. 최신 기술을 접목한 체험형 학습공간으로 관람객에게 흥미롭고 유익한 과학관 조성을 위해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일정 등을 협의하였다.



2022. 3. 30.

新기후평년값(1991-2020)을 활용한 대전·세종·충남 기후분석서 발간

대전지방기상청은 대전·세종·충남지역 기후위기 적응대책 및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新 기후평년값(1991-2020)을 활용한 대전·세종·충남 기후분석서」를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한 기후분석서에는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과거 30년, 구 평년값, 신 평년값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의 최근 기후특성 경향에 대한 이해도와 함께 기후위기 인식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2. 3. 31. 2021년 겨울철 기상특성 분석 세미나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지난 3월 31일에 ‘2021년 겨울철 기상 특성 분석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박찬귀 기상전문관은 2021년 겨울철에 나타난 위험기상 사례분석을 통해 지형 효과를 고려한 충남권의 2021년 겨울철 한파, 대설, 안개 등 위험기상 특성에 대해 강의하였다. 숙달된 기상전문관의 지식과 노하우를 예보관에게 전달함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2022년도 겨울철 위험기상에 대한 예보관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3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2022. 3. 31. ~ 4. 13.

찾아가는 해양기상 간담회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해양기상 업무에 대한 소통을 위해 관내 해양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현장의 의견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충남 소재 12개 기관을 직접 찾아갔으며, 기상청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소개와 함께 추진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현안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해상활동에 이바지할 것이다.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4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2022. 4. 4. ~ 11.

봄꽃 군락지 개화 및 만발 계절관측

대전지방기상청은 계룡산을 대전·세종·충남지역의 봄꽃 대표 군락단지로 지정하여 벚나무 계절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관측은 계룡산 국립공원 치안센터 맞은편의 벚나무 3그루를 기준으로 하며, 올해 계룡산 벚나무 개화는 4월 7일, 만발은 4월 11일로 관측되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올해 개화는 작년('21.3.29.)과 비교해 9일 늦으며, 만발은 작년('21.4.1.) 대비 10일이 늦은 것으로 발표하였다. 한편, 봄꽃 군락단지는 2017년 신탄진에서 계룡산으로 변경되었다.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4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2022. 4. 5.

제77회 대전지방기상청 식목일 행사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제77회 식목일을 기념하여 생활 속 녹색 문화공간 조성 및 직원 화합을 위해 식목일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대전(청)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과 연계하여 부서별로 기후변화 대안 수종을 선정해 나무와 화초를 심고 정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탄소중립 생활실천 다짐 서약서’와 직원들의 한 해 소망을 담은 타임캡슐을 땅에 묻으면서 함께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직원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를 통해 청 내 푸른 생동감을 불어넣어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일조하였다.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4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2022. 4. 7. ~ 5. 19.

대전지방기상청

여름방재기상업무 점검 · 개선회의

대전지방기상청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을 대비하여 방재기상 업무 점검 · 개선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방재기상 현안과 미흡사항 등에 대한 해결방안 도출과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또한, 주제별로 대전지방기상청 관할 관측망 점검, 관측역량 및 지역예보기술 강화방안, 관계기관과의 협업 · 소통방안, 지난 충남권 주요 피해사례 등을 되돌아보며 빈틈없는 방재업무 수행을 위해 부서 간 소통과 협력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가이드스 개발(연구중)

국지호우에 대응하자(1시간 60mm이상 강수)

충남권 국지호우 패턴 도식화(연구중)

충남권 국지호우 가이드스 제공 예정

예시

그림 2-2. 부산 지역에 나타나는 누적강수량 120mm/3h 이상 호우 사례의 유형별 분포도
(a) 저기압 통과형, (b) mT 가장자리형, (c) 태풍 통과형

예시

그림 2-17. mT 가장자리에서 제주 동부지역 낮에 발생하는 국지호우 오식도(상층저렴형)

예보관이 쉽게 이해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충남권만의 가이드스 제공 예정



2022. 4. 19. ~ 5. 20.

영향예보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위한 상반기 현장답사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호우 위험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전조사 목적으로 호우 피해 및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답사를 수행하였다. 이번 답사는 맞춤형 영향예보 연구원을 대상으로 5개 팀을 구성하여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에 걸쳐 답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호우가 발생하는 지역적 특성 및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지역 맞춤형 영향예보 서비스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3-24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4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2022. 4. 21.

2022년 지역기상융합서비스 착수보고회 및 정보사용자협의회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4월 21일 충청도청 관계자와 전문가를 초청하여 ‘충남관광 100선 맞춤형 관광기상융합서비스 개발’의 착수보고회 및 정보사용자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사업은 충청남도가 선정한 충남관광 100선의 여행지 정보와 날씨, 기후 등의 기상정보를 융합하여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역 관광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2. 4. 22.

대전지방기상청-대전교통공사 기후행동 업무협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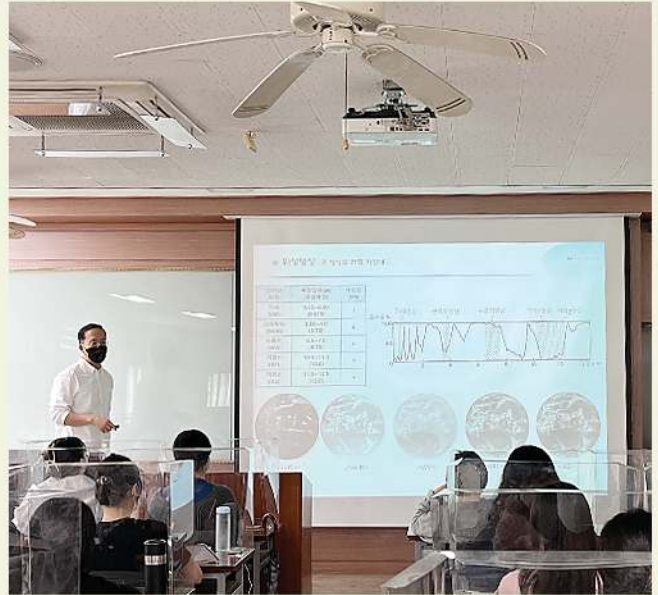


DROM

대전지방기상청은 기후변화·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든든한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기후행동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이번 협약식이 진행된 4월 22일은 기후변화 주간 및 지구의 날로 지구를 지키기 위한 양 기관의 마음이 하나로 힘을 모은 계기가 된 의미있는 날이었다. 대전지하철은 1호선 내의 역사 공간에 다양한 기후변화실물 콘텐츠를 공유하고, 전동차내 모니터 등을 통해 기후변화과학 및 주요 정책이 홍보될 수 있는 새로운 소통 창구가 될 것이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 대전지방기상청이 함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25-26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4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2022. 4. 26. ~ 5. 3.

공주대학교 기상실무 교육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기상예보기술 보급을 통한 미래 기상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3회에 걸쳐 공주대학교를 방문하여 기상실무 교육을 운영하였다. 공주대학교 대기과학과 학부생을 대상으로 단열선도 분석, 일기도 묘화 및 일기도 해석법 등 기상실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예보기술 보급에 힘썼다.





2022. 4. 28.

폭염 영향예보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맞춤형 영향예보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폭염 영향예보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충청남도 지형·지리적 특성과 폭염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분석’이라는 주제로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박종철 교수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이번 강의로 우리 지역의 지리학적 특성인 산지·하천 지형, 수자원의 분포와 폭염이 각 분야(보건, 산업, 농업, 축산, 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4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2022. 4. 29.

2021년 대전·세종·충남 기상기후보고서 발간

대전지방기상청은 2021년 대전·세종·충남 지역 기후특성 분석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고자 「2021년 대전·세종·충남 기상기후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기상기후보고서에는 계절별 기후특성, 이상기후 분석을 담아 우리 지역의 최근 경향과 이상기후 이해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DROM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5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2022. 5. 2. ~ 12.

여름철 방재기간 대비 유관기관 현장 방문

대전지방기상청은 여름철 방재기간에 대비하여 금강유역환경청, 보령해양경찰서, TBN 교통방송, 대전광역시청, 세종특별자치시청 등 충남권 소재 방재 유관기관에 방문하여 현장에서 위험기상 대응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올여름 기상지원 및 소통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호우로 인한 홍수 및 하천 범람에 대비하고, 재해취약지구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기상청-유관기관 간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등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29-30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5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2022. 5. 6.

대전ASOS 백엽상 제작 및 교체 설치

대전지방기상청은 백엽상 내에 온·습도계를 설치하여 대전 ASOS(133)의 기온과 습도를 관측하고 있다. 최근 백엽상의 부식과 노후화로 관측환경이 열악해져, 백엽상을 새로 제작하여 교체·설치하였다. 이로써 관측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관측장비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전청 대표지점으로써 백엽상이 주는 상징성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2. 5. 10.

‘경자(경험과 자산)를 알자’ 세미나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여름철 방재기간에 대비하여 기상전문관의 예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우리 지역 예보관들의 전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5월 10일 ‘경자(경험과 자산)를 알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폐색전선을 유형별(온난형, 한랭형)로 구분하고, 전선의 발달 과정과 특징을 이해하며, 실제 발생 사례 분석과 토의를 통해 여름철 우리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기상에 적극 대비하였다.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5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2022. 5. 19., 5. 30.

예보관 직업체험 「커리어 멘토」 운영

탄소중립 사회가 대두되면서 기후변화과학에 대한 관심과 이와 연계된 진로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기후변화 감시·예측 업무 등 새로운 진로탐색분야를 선정하여 블렌디드 러닝 형식으로 커리어멘토를 진행한다. 블렌디드 러닝은 비대면 영상 콘텐츠를 보고 기상청에 대한 흥미를 유발한 후 실제 학생들과 대면 만남으로 현실감을 높이는 방식이다. 우리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이 기상청의 다양한 업무에 대해 알게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기록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2022년도 식물계절관측(봄꽃) 현황



개나리

발아

- 3월 16일
- 작년대비 1일 늦음
- 평년대비 2일 빠름

개화

- 3월 27일
- 작년대비 9일 늦음
- 평년대비 1일 늦음

만발

- 4월 4일
- 작년대비 13일 늦음
- 평년대비 4일 늦음

진달래

발아

- 3월 15일
- 작년대비 7일 늦음
- 평년대비 4일 빠름

개화

- 3월 24일
- 작년대비 8일 늦음
- 평년대비 5일 빠름

만발

- 3월 27일
- 작년대비 8일 늦음
- 평년대비 6일 빠름

벚꽃 군락단지(계룡산)

개화전

- 3월 3일 촬영
- 구름조금 / 7.9℃

개화

- 4월 7일 촬영
- 맑음 / 9℃
- 작년대비 9일 늦음

만발

- 4월 11일 촬영
- 맑음 / 20.0℃
- 작년대비 10일 늦음

※ 벚꽃 군락단지 관측은 2017년부터 신탄진에서 계룡산으로 변경

3

2022
March

- 3. 4. 상순 일최대순간풍속 최고 극값(순위) 경신
홍성: 1위 19.8m/s, 보령: 3위 16.0m/s, 세종: 3위 9.6m/s, 부여: 4위 14.8m/s,
금산: 4위 14.9m/s
- 3. 5. 상순 일최대순간풍속 최고 극값(순위) 경신
세종: 1위 11.1m/s, 부여: 3위 15.0m/s, 홍성: 2위 15.2m/s
- 3. 6. 상순 일최대순간풍속 최고 극값(순위) 경신
세종: 5위 8.5m/s
- 3.13. 일최저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세종: 1위 11.8℃, 금산: 2위 12.9℃, 홍성: 3위 10.1℃부여: 4위 11.9℃, 천안: 4위 11.3℃
대전: 5위 13.0℃
- 상순 일최저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서산: 3위 9.3℃

4

2022
April

- 4. 9. 상순 일최저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보령: 2위 14.6℃, 세종: 5위 9.8℃, 홍성: 5위 10.6℃
- 4.10. 상순 일최저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홍성: 2위 12.8℃, 세종: 4위 10.3℃, 보령: 5위 13.6℃



- 4.10. 상순 일최고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세종: 1위 27.1℃, 대전: 3위 27.6℃, 홍성: 3위 23.2℃, 천안: 4위 26.3℃
- 4.11. 중순 일최고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세종: 1위 27.4℃, 홍성: 3위 25.5℃, 대전: 4위 28.3℃
- 4.26. 하순 일최저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세종: 1위 15.4℃, 홍성: 2위 15.3℃, 천안: 5위 15.2℃

5

2022
May

- 5.16. 중순 일최저기온 최저 극값(순위) 경신
세종: 1위 6.6℃, 천안: 4위 3.9℃, 부여: 5위 4.9℃, 홍성: 5위 9.0℃

※ 홍성: 예비관측일인 2015. 11. 03.부터 통계된 자료(정규관측: 2017. 11. 01.)

※ 세종: 예비관측일인 2019. 04. 01.부터 통계된 자료(정규관측: 2020. 04. 01.)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는 기상청 전자민원

어떻게
달라졌나요?

<http://minwon.kma.go.kr>



인터넷 간편 신청, 발급

기상특보와 지진관측을 포함하여 모든 기상현상증명을 인터넷에서 무료 발급합니다.
(기상현상증명, 기상자료제공, 지진관측증명)

전자증명서(PDF) 다운로드

전자증명서(PDF)를 발급하며,
기존의 종이출력과 파일 다운로드 모두 가능합니다.



디지털원패스(정부통합ID) 로그인

다양한 정부사이트를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부통합 ID를 적용하였습니다.

플러그인 설치없는 웹 환경

플러그인 대체 방안을 마련하여
기존 Active X를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없는 민원 서식

증명서의 개인정보 표시 제한, 세로형 출력 등
민원 서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무료로 발급 받으세요 알기쉬운 민원 신청방법

민원사무의 종류

1. 기상현상증명

법원, 경찰서, 보험회사 등 기관 및 단체의 법적 근거서류, 공사연기원 등 증빙용

2. 기상자료제공

학술·연구, 보고서 및 일지 작성 등 기록 및 분석용

기상청 전자민원 신청 순서

디지털원패스란, 다양한 서비스를 한번의 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부통합ID입니다.

1

회원가입(정부통합ID)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디지털원패스**에 회원가입하고 **기상청전자민원**을 이용기관으로 체크합니다.

2

로그인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디지털원패스ID**(정부통합ID)로 로그인합니다.

3

민원신청선택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신청**을 선택합니다.

4

민원종류선택

기상현상증명, 기상자료제공, 지진 관측증명 중 내가 필요한 민원을 선택합니다.

5

신청용도선택

농업, 토목/건축, 법률/보험, 학술/연구 등 신청용도를 선택합니다.

6

기상요소선택

종류, 지점, 요소, 기간 선택을 순서대로 선택하고 **다음**버튼을 누릅니다.

7

신청내용확인

신청내용(신청용도, 종류, 요소, 지점, 기간)을 확인하고 **신청**버튼을 누릅니다

8

발급완료

민원보관함에서 **발급하기**를 클릭하여 전자증명서(PDF)를 다운로드 하거나 인쇄하면 완료!

대전지방기상청관할 지상관측지점 현황 (2022. 5. 현재)

1. ASOS(8소)

대전(133), 서산(129), 홍성(177), 천안(232), 보령(235), 부여(236), 금산(238), 세종(239)

2. AWS(40소)

오월드(642), 세천(643), 장동(648), 세종고운(494), 세종금남(496), 세종연서(611), 세종전의(629)
계룡(636), 계룡산(659), 공주(612), 유구(632), 정안(633), 논산(615), 연무(644), 당진(616), 신평(637)
호도(578), 삽시도(609), 대천항(657), 외연도(669), 양화(635), 대산(606), 서천(614), 춘장대(646)
아산(634), 송악(493), 예산(628), 원효봉(694), 성거(617), 창양(618), 경산(691), 근흥(607), 민리포(658)
북격렬비도(229), 태안(627), 안도(666), 옹도(667), 흥북(608), 흥성죽도(610), 서부(645)

※ 기상특보 발표구역은 해당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 단위로 발표함(기상법 예보업무규정 제8조 제2호)



대전지방기상청

(34142) 383, Daehak-ro, Yuseong-gu, Daejeon, Korea
TEL. +82-42-363-3599
Copyright © 2015 DROM. All rights reserved.